



[뉴스]
위드 코로나
여행 소비심리 불 지퍼
해외 항공권 불티
02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975.71	↓ 코스닥	1005.00
	(-37.78)		(-4.44)
↓ 금리 (연고액 기준)	2.036	↑ 환율 (원/달러)	1181.60
	(-0.002)		(+7.20)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새 AP에 AMD GPU 탑재, S펜 내장까지

윤곽 드러나는 '갤S22' 내년 2월 출격

갤S22 추정부품 생산 시작
엑시노스 2200 등 새 AP에
AMD 협업 GPU 탑재 가능성
반도체 물량 확보 어려워
내년 1월 아닌 2월 출시 유력



레츠고디지털이 예상한 갤럭시S22 모습. /레츠고디지털

차기 갤럭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부품 양산에 돌입하며 지난해와 같이 연초 출시 전략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작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22로 추정되는 스마트폰 부품 생산을 시작했다.

갤럭시S21과 같이 갤럭시S22도 내년 초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지난해에도 10월 말부터 갤럭시S21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연초에 신작을 내놓고 경쟁 모델인 애플 아이폰 13에 빠르게 대응할 전망이다.

갤럭시S22는 전자 대비 성능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쿼드 스냅드래곤 898이

나 엑시노스 2200 등 새로운 AP가 장착될 예정, 발열 논란이 있었던 전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노트 시리즈도 흡수한다는 추측이다. 울트라 모델에 S펜 수납 공간을 탑재한다는 예상도 힘을 얻고 있다. 레츠고디지털은 갤럭시S22 옛지 디스플레이 곡률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더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모델은 Arm의 말리대신 삼성전자가 AMD와 협업해 개발한 GPU를 탑재할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 오랫동안 Arm의 GPU 성능이 비판을 받았던 상황, GPU 시장 '2인자'인 AMD가 개발을 맡으면 부족했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는 것. 갤럭시S21이 보급에 초점을 맞췄던 데다가 노트 시리즈도 지난해 출시를 포기하면서 안드로이드 바형스마트폰 중에서는 갤럭시S22가 유일한 플래그십으로 남게 됐다.

다만 올해 유출 내용은 예년과 비교해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찌감치 사양과 디자인까지 완전히 유출되면서 논란이 컸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만 소문이 떠돌고 있다.

당장 디자인에서 이견이 크다. 당초 틱스터들은 갤럭시S22가 카메라사와 협업해 1인치 이미지센서를 장착한 '왕눈이'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메라 렌즈가 각각 돌출된 '물방울' 형태로

나올 것이라며 후면 패널 시제품까지 유출됐다.

이어서 다시 갤럭시S22가 전작과 같은 '컨투어 컷'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화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을 만들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이미지센서 화소 경쟁에서는 소니를 앞선 상태, 최근 1인치급에 2억화소인 아이소셀 HP1을 출시하며 풀사이즈급 카메라 구현 역량까지 갖췄다.

출시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양산 시점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1월이 아닌 2월 출시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공룡 기업 뿐만 아니라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IT, 경제, 문화, 정치 등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앱을 설치하고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페토월드'에 입장하면 공항, 교실, 파티 룸 등 '맵'을 통해 다양한 세상과 만날 수 있고, 가상의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활동하게 하는 AI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AI로 가상인간을 만들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거나 AI 모델, AI 유튜버, 심지어는 AI 아이돌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가상인간인 이마는 지난해 8월 이케야가 도쿄에 새롭게 매장을 내자, 3일간 이케야 가상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상의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와 AI는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메타버스와 AI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주 제 :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
 -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온·오프라인 병행)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 기조강연 : 박상용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 강 사 : 박외진 아크릴 대표, 이정수 플라토 대표,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온라인 접속 : 이메일 등록하면 신청자에게 해당 이메일로 접속 URL 공지
 - 문 의 :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C·P·W·S 4대 성장엔진에 3년 간 10조 투자”

(컬처·플랫폼·웰니스·서스테이너빌리티)

CJ 이재현, 중기비전 발표 ESG기반 신사업으로 혁신



◆4대 성장엔진에 2023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

“CJ는 트렌드 리딩력, 기술력, 마케팅 등 초격차역량으로 미래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이를 주도할 최고인재들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명적으로 혁신해 세계인의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3일 특별 제작된 동영상 통해 컬처(Culture), 플랫폼(Platform), 웰니스(Wellness),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중기비전을 밝혔다.

CJ가 성장의 핵심 동력인 4가지다. 컬처 분야에서는 CJ가 만드는 음식, 음악, 영상 콘텐츠, 뷰티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와 제품을 세계인이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중심으로 만두·치킨·K소스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이다. 플랫폼에서는 CJ 계열사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물류 인프라 등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고객중심 경영을 가속화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CJ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슈퍼플랫폼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웰니스는 CJ제일제당의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차세대 치료제 중심 레드바이옴을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개인맞춤형 토탈 건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는 친환경·신소재·미래식량 등 혁신 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탄소자원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인재육성…자기주도적 성장 기회 부여

이 회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인재”라며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어 하고, 같이 성장하는 CJ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CJ 주요 계열사들은 직원 자율에 기반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거점오피스, 재택근무제를 부분 도입했다. 이를 그룹 전반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구성원들이 기존의 조직에서 벗어나 새 사업에 도전할 기회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받았지만 증권사 매물 없어 인수 난항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등급법을 승인하면서 증권사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증권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팔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시장에 나온 매물도 없어 증권사 인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2면에 계속)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승용 기자 lsy2665@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윤석열 사과 진정성 의심…野 5·18 망언 3인방 있어” /사진 뉴시스
▲ 안철수 “다자대결도 자신있다…이준석, 평론가때 버릇 못버려”

▲ 이재명과 단일화 선 그은 심상정 “나로 정권교체”
▲ 이준석-송영길 또 충돌…백현동·대장동 특혜의혹 ‘갑론을박’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율 60% 돌파
▲ 김부겸, 재난지원금에 “어려웠다…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나” /사진 뉴시스